

# 꿈

CUM

청춘 꿈에 눈뜨다!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July 2013

VOL43 - SPECIAL ISSUE





신중환, 이상희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013년 수시특집호 통권 43호

발행일 2013년 7월 15일

발행처 대구가톨릭대학교 홍보실

발행인 홍 철 전화 053-850-3044

팩스 053-850-3900

이메일 cupr @ cu.ac.kr

디자인 인디자인 ( 070-7624-0053 )

PHOTO 0125 Studio ( 053-422-0125 )



‘꿈(CUM)’은 ‘더불어’, ‘함께’의 뜻을 가진 라틴어 ‘cum’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모든 대가대 가족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고, 그로 인해 우리 함께 젊음의 꿈을 더욱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대 소식지 ‘꿈’이 꾸는 꿈입니다.

CUM Story

04 꿈(DREAM)을 만드는 꿈(CUM) 이야기 넷

비전이 활짝

10 가슴 뛰는 비전, 그것은 사랑 - 전현호 신부

12 머리는 지혜롭게, 가슴은 따뜻하게 -

인성교육 프로그램

14 아프리카의 심장 탄자니아에서 아픔을 만나다

- 안경광학과 CU-VOT

18 봉사로 행복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도전이 반짝

22 우리에겐 취업안심구역이 있다!

24 취업준비특별반과 내공쌓기 동행 24시

26 대가대 막강파워 의공학과를 소개합니다

28 담대한 도전으로 빛나다! - CAMA팀

열정이 두근

32 SNS 대상받은 뜰끼 충만 세 남자에 빠지다

36 열정이여, 영원하라! - 록밴드 동아리 ‘인트로’

40 잘 나가는 청춘, 열정을 입다!

미래가 성큼

44 대가대는 지금 장학금 르네상스 시대

46 장학생 되는 비결? 나만 믿고 따라와

48 다숨, 내 미래를 부탁해!

꿈 이야기

하나

비전

## Vision



유혜진  
간호학과 12학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학문이자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죠. 실생활에 유용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학문이어서 더 보람을 느껴요. 간호사가 꿈이라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대가대로 오세요. 함께 그 비전을 이뤄나가지 않으실래요?

꿈 이야기

두울

도전

## Challenge



반가희  
외식식품산업학전공 11학번

삶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저에게 늘 도전이 되지요.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지키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외식식품을 창조하는 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꿈 이야기

세엿

열정

## Passion



한 승 섭  
경찰행정학과 10학번

열정이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 되기 위해 흘리는 지금의 땀방울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비지도사, 운전면허증, 무도자격증 등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는 데 기여하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꿈 이야기

네엿

미래

## Future



이 정 아  
조형예술학부 회화전공 09학번

행복한 미래는 현재 학생의 본분에 충실할 때 온다고 믿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보니 '신조형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또 조교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미래는 아름답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후배님들, 파이팅!



# 비전 화작





# 가슴 뛰는 비전 그것은 사랑

전현호 신부 인성교육원장

전현호 신부가 원장을 맡고 있는 인성교육원은 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만의 특별한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단정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의지와 직결되는 듯 하다.



“최근 들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스펙보다는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과 일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해줍니다. 양보와 협조, 인문학적 소양, 나아가 신앙과도 연계되는 보편적인 성숙된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든 거죠. 성취와 효율성 측면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인성, 나아가 영성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는 사회가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의 문을 통과하는 느낌 이랄까요.”

## 우리 대학의 비전은 사랑과 봉사

사랑과 봉사를 하려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현호 신부.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건강, 외국어능력, 전공에 대한 이해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대인관계 등 이 모든 게 모여서 실력이 된다고 봐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아가 주변의 행복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3위다. 이 땅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려면 서로 양보하고, 차분하게 사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이는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럴만한 시대에 들어온 것이죠. 산업성장과 지적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창조를 이야기 할 단계에 온 겁니다. 인성이 영성으로 완성이 되듯,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님과 자연과 창조주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 때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마음이 나옵니다. 선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 자기 삶에 먼저 충실하세요

먼저 자기 삶에 충실하라고 권면하는 전현호 신부. 자신을 충실히 가꿔야 그 힘으로 봉사도 하고 ‘더불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특히 우리를 끊임없이 산만하게 하는 정보의 홍수에 자기를 내맡기지 말고 먼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조언한다.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책은 물론 인터넷 신문이 아닌 종이신문도 날마다 읽으라는 말을 덧붙인다. “잠 푹 자고, 체력관리 잘 하고, 안 만나도 되는 만남 줄여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세요. 젊은 날의 1시간은 나이 든 사람의 5시간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은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보다 사랑임을 강조하는 그의 인자한 미소 뒤로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 머리는 지혜롭게 가슴은 따뜻하게

실력있는 인재로 세상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 높은 학점, 화려한 스펙, 남다른 업무 능력...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을 위한 내실있는 인성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참인재상을 갖추는 비결이라는데... 자, 우리 대학 인성교육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속으로 Go Go~

## 사랑의 대가를 키우는 대가대



### 학교 밖에서도

### 인성교육은

### 계속된다!

#### 국내·외 봉사활동

16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32회 이상에 걸쳐 4,000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0학번 신입생부터는 졸업인증제 인증요건으로 재학기간 동안 32시간 봉사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해외는 2008년 여름방학부터 몽골로 매년 30여명의 학생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방학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2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새내기부터

### 인성교육 시작!

#### 교과목 프로그램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는 교육인 교양필수 교과목. 대가대는 이 교양필수 교과목도 인성으로 시작한다. ‘가톨릭사상’, ‘참 삶의 길’은 물론 ‘체험형 인성’은 수업 중에 장애·임종·노인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사회 및 직업윤리’ 교과목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준다.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은 물론 인생관 정립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그 외 주요 인성교육프로그램

‘취업캠프’는 어느 대학에나 있는 프로그램. 하지만 대가대는 그와 더불어 ‘인성캠프’를 실시한다. 경주에 있는 수련원에서 1박 2일간 합숙을 하며,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매 학기마다 2~3회 열리는 인성교육특강도 인기다. 프로야구 양준혁 선수, 시인 이해인 수녀, 개그맨 이동우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새로 가다듬는 기회를 제공한다.



굿바이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심장  
탄자니아에서  
아픔을  
만나다

탄자니아 전공심화 해외체험 프로그램 참가팀  
안경광학과 CU-VOT

CU VOT<sup>®</sup> Vision of Tanzania 란 팀명처럼 탄자니아를 향한  
사랑의 비전을 품고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다녀  
왔다. 20여 시간을 날아간 그곳에서의 단 열흘간  
의 여정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본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팀장 김경동 학생(10학번)의 말이다.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먼저 걱정이 많았던 것. 주사는 맞았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치안상태는 믿을 만한지. 그러나 드넓은 초원과 원주민들, 야생 동물들로 가득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선입견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지없이 깨졌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렘에 도착하고 보니, 매우 바빠 보이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인 그들의 삶이 보인 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빌딩들과 많은 자동차들을 보며 미개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 잡게 됐다고. 그러나 ‘빨리빨리’의 문화보다는 ‘천천히’라는 말이 더 익숙한 나라라서 그런지 여유 있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편 부럽기도 했다.



여느 나라처럼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10분가량 교외로 나가니 말 그대로 초원이 펼쳐졌다.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다. ‘미쿠미’라는 사파리공원에는 이틀에 걸쳐 방문했는데 기린, 버팔로, 코끼리, 원숭이, 얼룩말, 하마 등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에메랄드 빛깔 바다의 잔지바르 섬의 모습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웠다.

눈에 이상이 있는 것도 모른 채  
평생 살아가는 그들을 보다

선교사가 활동하는 교회로 가서 검안 및 안경처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공을 토대로 봉사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긴 것. 그러나 시력을 검사하고 처방에 맞는 안경도수를 체크하여 준비한 렌즈를 안경에 끼워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착잡한 심정이었다는 김경동 팀장.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걸 보고 안타까웠어요. 의사가 아닌 나로서는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안경에 관한 치료시설 하나없이 그 아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출발 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탄자니아.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늘  
불평만 늘어놓는 나를 돌아보다

김성훈 학생(10학번)은 아프리카인들 중 시력이 나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눈에 이상이 있는 줄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됐다.



김현정 학생(11학번) 역시 이번 해외체험에 대해 아쉬움 가득하다고 전한다.

“시력검사 할 때 현지인들이 연신 ‘땡큐 땡큐’라고 말하며 약수를 청할 때 가장 뿌듯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이 깎아온 렌즈도수 이상으로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노인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죠.”

한명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점심도 굶고 쉬는 시간도 없이 매진한 그들. 1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검안해 주고 나니 목이 마르고 허리도 아팠다. 그러나 뿌듯함 만은 가득했다. 돈과 바꿀 수 없었던 값진 경험, 흑인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그들에겐 이번 해외체험이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어 과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었지만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고, 고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해외복수학위과정으로 미국 미시시피주립대에 재학 중인 류형국(경영학과 08), 김엘림(정치외교학과 10)학생이 지난 4월 23일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President’s Service Award) 동상을 수상했다. 현지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시기였지만 지난 해 4월부터 1년간 각각 100시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그들, 이제 유학생할 한 학기를 앞둔 그들의 무엇이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했는지 지면을 통해 만나보자.

# 봉사로 행복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President’s Service Award)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년 동안 100~174시간은 동상, 175~249시간은 은상, 250시간 이상은 금상이 주어진다.

## 봉사활동 소개와 수상 소감을 밝힌다면?

**김엘림** 3개월의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내려고 시작한 교내봉사활동을 계기로 하나에 \$1로 기부되는 삐모양의 찰흙 만들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적십자활동, 한글학교 교사, 집페인트칠하기, 농장일손 돕기 등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번 가정센터에 가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을 했죠. 서로 언어와 문화

가 다르지만 서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류형국**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 공부도 할 겸 시작했는데, 점차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학교 행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 미국 적십자 재단 복구팀에서 활동했어요. 봄방학 때는 미시시피 델타지역의 아이들 컴퓨터와 농장 일을 도와주었어요. 학업과 동시에 많은 시간을 봉사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회에 도움되는 일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더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가능성이 0인 일은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다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면 됩니다.”

## 꿈,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김엘림** 어릴 때 아버지의 유학으로 가족이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 역시 커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때 IOC위원 담당 의전통역요원 활동을 통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꿈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국제부에 취직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류형국** 어떤 회사에 가든지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미국과 연계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MBA학위를 따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병원 경영을 통해 돈이 없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김엘림** 실수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값진 경험들로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기회들을 활용한다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류형국**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것뿐이죠. 그런 전례가 없다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변에서 다 쓸모없는

'Starkville Volunteer Superstar'로 불리기도 하는 김엘림 씨. 최근 학교체육관 프론트 데스크에서 1년째 일하며 ‘올해 우수 직원상’을 받은 등 미시시피주립대 ‘Our People’로 선정,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College of Business 대사단, 한인 학생회 기획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류형국 씨는 미국 월마트에서 필드 매니지먼트 인턴십을 수행중이다. 봉사로 행복한 청춘,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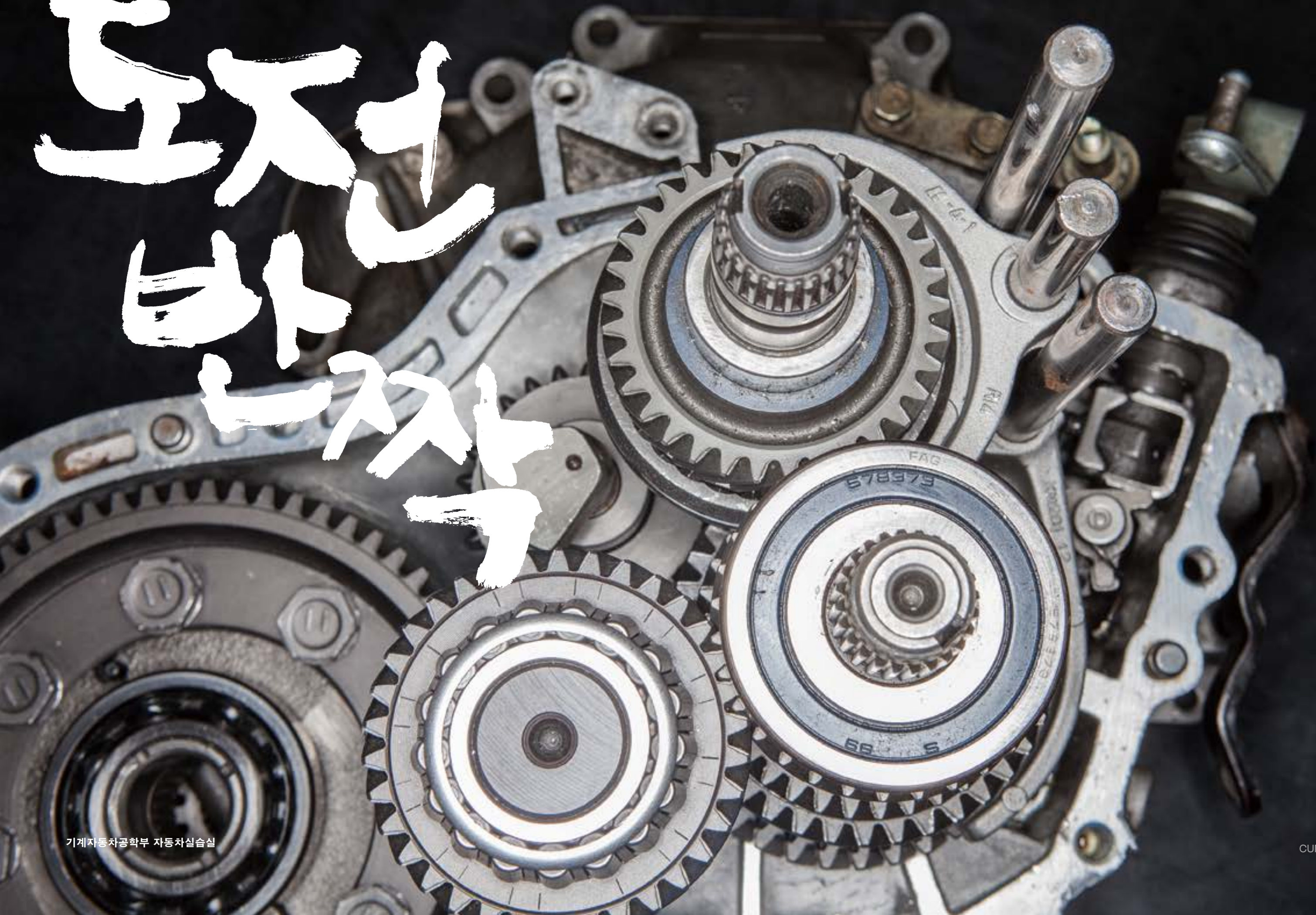


학교체육관 프론트 데스크에서 1년째 일하며 ‘올해 우수 직원상’을 받은 김엘림 씨가 미시시피주립대 ‘Our People’로 선정,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일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내 일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이뤄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열심히 살수록 선택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보다는 ‘또 뭐하지’라고 되새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세요.



# 도파자





#### 대가들의 취업안심구역 JSA

대가대생들의 성공취업을 돕는 취업지원팀의 또다른 이름 JSA(Job Specialist Area). 채용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교과목 운영은 물론 취업교육전문교수와의 1:1상담, 취업준비특별반, 취업캠프, 취업특강, 적성검사, 면접클리닉까지 대가대에 입학한 순간 취업은 곧 안심이 된다.

#### 학년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4학년만 취업준비 하냐고? No~ 대가대는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학년은 자기분석, 적성파악, 진로설계, 어학계획 수립 등 2학년은 취업 및 진로계획 수립과 함께 학점관리, 외국어 집중학습, 해외문화체험, 해외자원봉사 참가 등으로 구성된다. 3학년이 되면 자격증 취득, 외국어 역량강화는 물론 취업지원프로그램, 인턴십, 공모전 참가 등 Practical Course에 돌입한다. 드디어 4학년! 희망기업 탐방, 취업박람회, 취업스터디 활동, 입사서류 클리닉 및 모의면접, 개인경력DB 최종점검 등 Final Course로 마무리.

#### 취업교육 포인트제도

체계적인 학생 경력관리와 장학제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취업준비에 필수요소를 12개 분야, 30여개 영역으로 나눴다.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준비특별반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글로벌 역량 및 역사적 소양함양, 봉사활동 등이 그것인데 이들 80여개 항목이 포인트별로 분류된다. 이 포인트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펙은 저절로 나의 것이 되는 것. 취업관련 스펙도 쌓고, 장학금도 받는 이런 좋은 제도는 다른 대학이 벤치마킹해갈 정도로 대가대만의 자랑거리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강력한 취업지원시스템은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취업·창업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 현실화되면서 명실공히 취업불안은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 지금부터 대가대 취업안심구역으로 출발~

# 취업? 걱정 마! 우리에겐 취업 안심구역이 있다!



##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가?

배경수

취업교육전문교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취업의 비결을 묻자 단호하게 대답하는 배경수 교수. 취업전문가인 그에게서 들은 취업비결 일문일답.



배경수 교수

#### 01. 진로발견을 위한 팁은?

대학입시 때 무엇을 잘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취업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요.

#### 02. 취업 성공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과공부는 물론 영어공부, 신문스크랩, 밝은 표정, 긍정적 마인드 등. 특히 간접경험을 위해 독서를 권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찾기 위한 노력, 그게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전공이나 지방대라는 테두리에 갇혀 먼저 포기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 경계하세요.

#### 03. 수업 중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목표의식과 자신감이에요. 취업은 4학년 2학기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진로를 먼저 정하고 목표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의 기준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할 수 있어야 하지요.

#### 04. 취업의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을 즐기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미리 걱정하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토익공부, 자격증, 연애 등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니깐요. 그게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도전 아닐까요?



# 나를 따르라! 취업준비 특별반과 내공쌓기 동행 24시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의 명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한 대가대의 자량, 취업준비특별반을 따라가 보면 그 해답이 보인다. 취업준비특별반과의 동행 24시, 그들을 만나보자.

## 취업 정보 검색

취업준비특별반이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취업지원팀. 취업과 직무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한 발 빠른 취업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신이 감춰놓은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도 찾아낼 수 있다. 내일 있는 기업의 알짜배기 일자리를 찾아 G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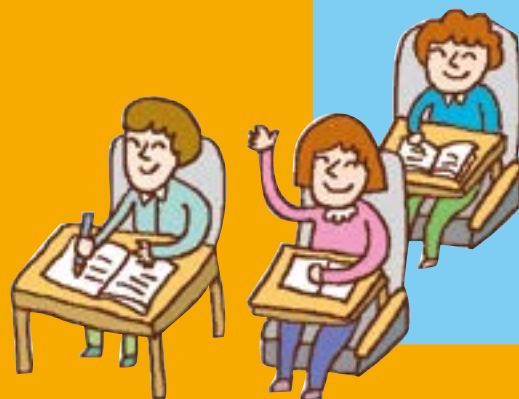


09



## 취업교과목 수강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년마다 정규 교과과정 안에 다양한 취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비전 수립과 진로 탐색, 채용 실전과정에 관한 교과목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학년별로 개설돼 있어 4년간 정규 수업만으로도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취업교육 교수님과 면담

취업지원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미리 취업상담을 신청하면 취업교육전문교수와 언제든 심층상담을 할 수 있다. 전문컨설턴트와 상담을 하고 나면 취업 준비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은 어느덧 사라진다. 취업준비특별반은 수시로 취업교육전문교수와 멘토링을 하면서 취업준비 상황을 점검해가며 취업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8

## 취업준비특별반 스터디

정규 수업이 끝났지만 취업준비특별반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금부터다. 업종별, 직무별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준비특별반 학생들의 스터디가 시작되기 때문. 같은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다보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취업준비특별반의 모든 스터디는 취업교육전문교수가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까지 실시한다.



## 중앙도서관

점심 식사 전 자투리 시간은 아늑하고 쾌적한 중앙도서관에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취업준비특별반 학생들이 틈날 때마다 찾는 곳이다. 특히 중앙도서관 2층에는 다양한 정기간행물들이 비치되어 있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12

## 어학 강좌 수강

취업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안에는 다양한 어학 관련 강좌도 개설되고 있다. 지금은 단계별 토익강좌는 물론 토익 스피킹까지 집중강의 중.



16

19:40



##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매주 월·화요일에는 하교 시간이 더 늦어진다. 심층적인 취업 교육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기 때문. 직업·직무 능력검사를 비롯해 이미지 메이킹이나 입사서류 작성법에 관한 여러 특강이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취업률 우수학과의  
비결이 있다면?

“비결은 따로 없어요. 일단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교수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스스로 관심분야의 교수를 찾아오기

때문에 더 도와주게 되고, 진로선택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손영수 교수의 말처럼 의공학과의 면학분위기는 새내기 때부터 시작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월에는 무조건 의료기기박람회로 MT를 간다. 시야도 넓힐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입

사지원도 가능하다. 또 취업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팁도 얻는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학술제에는 졸업생을 강사로 세운 취업특강을 계획 중이다. 올림푸스, 짐머, 오스텍, 이지케어텍 등에 포진한 막강 선배들이 존재하기 때문. 이들은 특히 학과 커리큘럼

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적인 스펙, 능력에 대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엔 대구·경북지역 의공관련학회가 모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과 홍보는 물론 기업의 참여로 활발한 취업의 장이 될 것

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의공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분야예요. 특히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큰 이슈입니다. 우리 대학은 거리도 가깝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공학과를 최

초로 개설한 대학이자 활발한 연구와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아요. 기회는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입니다.”

100%

就業



학과장 손영수 교수

優勝



1학년 안소영(13학번)

“과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1학년은 필참이에요. 많이 경험하는 만큼 과나 전공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좋아요. 아무래도 단합이 잘 되니까 단체 체육대회 때 우승도 하고 그러겠조?”

多様性



3학년 최동진(09학번)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야의 다양성이예요. 모든 분야를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매년 좋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다는 것. 계속 변화, 성장하는 학과과 바로 우리 학과조.”

交流



4학년 류혜진(학생회장/10학번)

“선후배간의 교류가 가장 우선이죠. 1인1동아리, 짝선후배제도를 통해 정보공유, 멘토링 등 학술적 분위기가 되다보니 타 학과보다 앞서나갈 수 밖에 없어요. 신입생들이 과에 정착하기도 쉽죠.”

情報



2학년 이재우(10학번)

“생소한 분야인 만큼 학생들은 이미 자기 과에 대해 지식과 애정을 갖고 들어와요. 여러 어려움들은 선후배 교류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보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요. 취업에도 유리해요.”

자신의 손을 내밀며 “이런 백반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는 피부과 의사가 판단하지만, 레이저시스템은 의공학자들이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의공학과를 소개하는 학과장 손영수 교수. 매년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가대 막강파워 의공학과를 만나보자.

대가대  
막강파워  
의공학과를  
소개합니다



# 담대한 도전으로 빛나다!

후배들에 고함 - 대학생활에서 ‘이것’은 필수!

조진영

“청춘의 때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죽기살기로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4학년을 앞둔 마지막 겨울방학을 시작하며 죽기살기로 해 본 거예요. 한번 하니 도전이 쉬워지고, 도전방법도 체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태우

“열공은 물론 정보수집을 위해 친구도 많이 사귀세요. 도전도 많이 해봐야죠. 도전했다면 결과가 어땠든간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신이 필요해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보다 노력에 따른 성취감이 있어요. 뭐든지 많이 부딪혀보고 열정을 쏟아보세요.”

김장수

“책임감이란 것 때문에 도전에 앞서 겁부터 먹지 마세요. 저는 일단 시작을 하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많이 해 봐요. 안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시작을 해야 덜 후회하니까요. 시작하면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고 그 폭도 넓어져요.”

기계자동차공학부 CAMA팀이 최근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주)가 CAE<sup>Computer Aided Engineering</sup>(컴퓨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3 MSC 대학(원)생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앞서가는 기술로 번득이는 그들의 도전을 만나보자.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잘한다고 만족하기보다 세상에 나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전국에서 약 27개 팀이 왔어요. 석사팀, 박사팀도 있고, 서울권에서도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등 내로라하는 자동차과, 기계과 인재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우리가 된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원 자동차공학전공 1년차 권태우 씨의 말이다. 수상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메카트로닉스전공 4학년인 김장수, 조규영, 최재영 학생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권 씨는 출전경험도 있고, 수상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뻗다. 한 팀 인원을 세 명으로 제한시킨 대회 규정 탓이다. 하지만 양보의 미덕을 제대로 발휘한 그의 덕에 행운의 여신 역시 CAMA팀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건 나만이 아닐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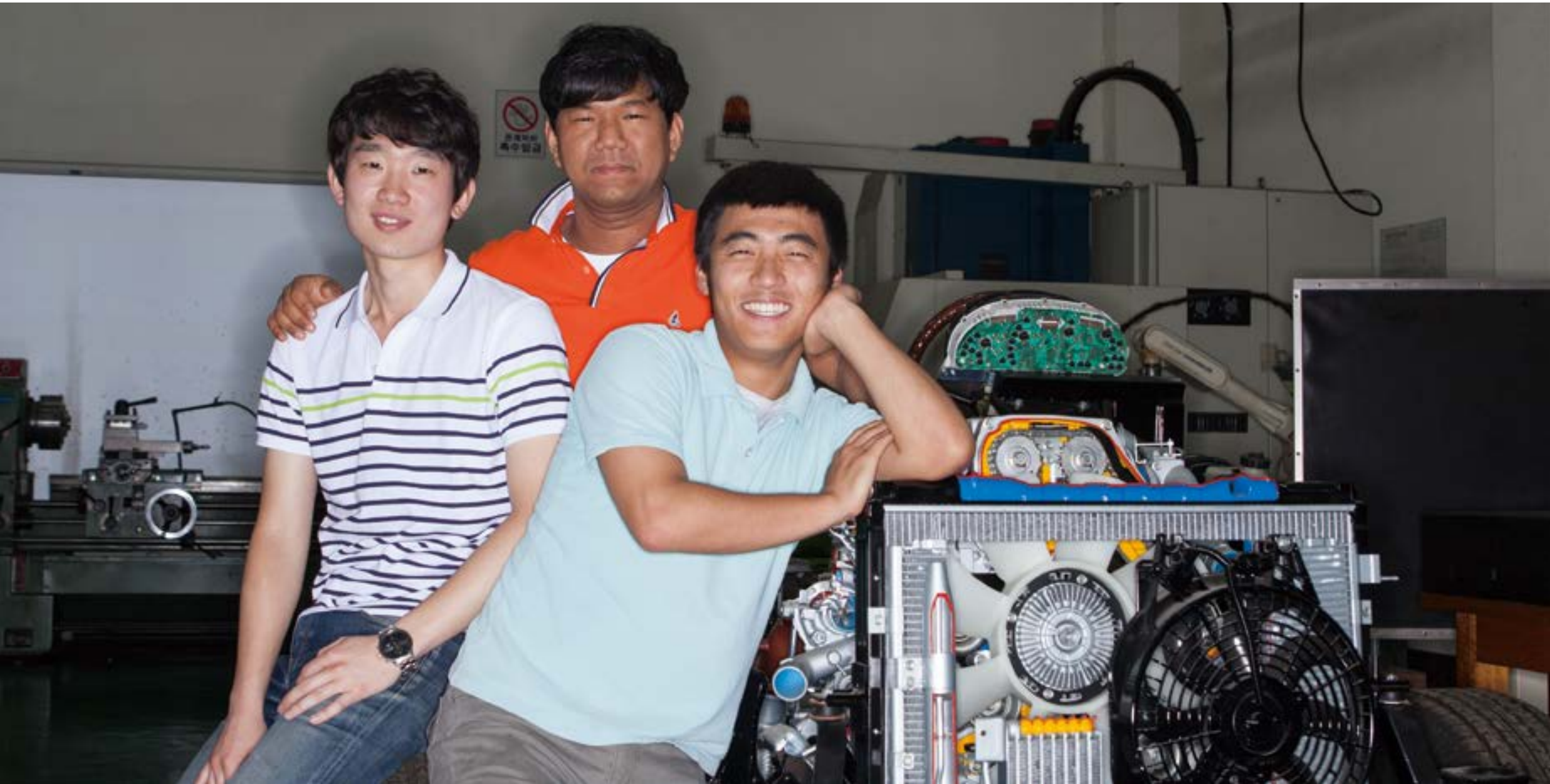
수상 욕심 없이 대회 참여에 의미를 두고 그저 열심히 했다는 그들. 겨울방학 내내 근 50일 동안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며 연구에 몰입했다. 그 결과 ‘ADAMS를 이용한 자전거 체인 및 변속기어 장치 메커니즘의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변속 전·후 자전거 체인의 동력전달이 이뤄지기 위해서 자전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의 필요성을 밝혀내고, 고성능 자전거에 필요한 부품 설계 기술을 찾아냈다.

“ADAMS 프로그램은 2년 전부터 공부해왔어요. 미리 준비해 온 덕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남들 놀 때 조금 더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미소만큼 그들의 미래 역시 밝다. 김장수 학생은 이미 MSC로 취업이 예정돼 있다. MSC에서 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팀원들은 더 공부하고 자신의 분야를 넓히고 싶은 마음에 MSC의 제안을 보류한 상태다.

“어디에서 공부하건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던 것도 학교에서 공부할 공간을 내줬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학부는 아주 훌륭한 실습실을 갖춰서요. 저희를 지도하신 김정운 교수님 등 교수님들도 유명하고 쟁쟁하신 분들이죠. 뜻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도전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인생의 무대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대회가 있다면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그들. 담대한 도전으로 빛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두려우랴~





# 미식축구

미식축구동아리 'SCUD-Angels'



# 돌끼 충만 세 남자에 빠지다



‘인사잘하기송’ 바로보기

‘대가대 사랑 SNS 콘텐츠 공모전’

대  
상

이 근 호 학생팀

요즘 대가대에서는 최신가요보다, 노래방 18번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있다. ‘나는 인사를 잘 하지’ 단 하나의 가사만으로 노래 한 곡이 완성되는 ‘인사잘하기 송’이 그것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지는 코믹한 인사장면들. 그들을 직접 만나보면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지금부터 기를 살리고 끼를 키우는 대가대의 매력 충만 세 남자의 세계로 빠져보시라~

한 집에 사는 세 남자 이근호, 박성중, 김인수. 그들은 1분 여 되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 70번 이상 인사를 해야 했다. 원본영상을 보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코믹한 연출 장면이 부지기수다.

특히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 많은 곳에서의 촬영에 늘 등 떠밀렸던 인수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근호 학생. 촬영에 들인 정성에 비해 콘티는 꼬박 하루 만에 완성되었단다.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선택하고, 촬영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촬영하고, 가는 곳마다 긍정적으로 도와주셔서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다는 그들.

“진짜 재밌었어요.” 학교 입학 전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던 경험을 살렸다는 이근호 학생. 학생홍보대사로서 이 캠페인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본인이 가진 기술로 가능하리라 판단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꿈〉소식지를 위해 촬영하는 내내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보는 우리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니... 알아서 이런저런 포즈를 잡고, 스스로 망가지며 즐거워하는 이들의 매력에 어느 누가 빠지지 않을 수 있으랴~



떨끼 총만 세 남자에게 무엇을 물었나?

하나,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소신발언? 두울, 청춘에게 열정은 뭐라 생각하나? 세엿, 대가대는 한마디로 다! 네엿,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하나, 환한 웃음으로 만날 수 있으니 좋다!  
두울, 열정? 한마디로 청춘이지!  
세엿, 연습이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든지 해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  
네엿, 트윈즈 공연 보러 많이 와. 그런데 서울도 팬클럽어?

이근호  
영어영문학과 08학번

세상을 밝히는 ‘안녕하세요’ 캠페인

대구가톨릭대학교는 5월 1일부터 대가대 가족 마음 나눔 행사로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미소인(미소 짓는 얼굴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나누시다 ‘안녕하세요’)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대가대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곳곳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인사잘하기 송은 ?

유튜브에 올린 지 4주 만에 6월 26일 현재 조회수 657회 기록, 여기에는 중독성 있는 ‘인사잘하기 송’이 한 몫 한다. ‘인사잘하기 송’은 이근호 학생 자작곡이다. 이미 작업해 놓았던 ‘놀아요’란 곡을 개사해 탄생시킨 것. 어릴 때부터 같이 노래해 온 친구와 ‘트윈즈’라는 2인조 힙합그룹까지 결성했다는 그. 여름에 싱글앨범을 내고 연말에는 공연도 계획 중이다.



우린 속았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줄 모르고 했다는 박성중, 김인수 학생. 너무 많이 알려져서 대상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불 질렀을 거라나 뭐라나. 아무튼 큰 일 뻔 했다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들. 덕분에 어르신만 보면 인사하는 좋은 버릇이 생겼다.

하나, 각박한 세상에서 만난 빛 한 줄기.  
두울, 사람을 움직이는 힘!  
세엿, 스마트폰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네엿, 와라! 뭐든 된다!

박성중  
영어영문학과 08학번



김인수  
영어영문학과 10학번

하나, 사회의 아웃사이더를 미리 예방하는 좋은 기회다.  
두울,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볼태울 수 있는 연료.  
세엿, 4계절 중 가장 색깔있는 계절 가을! 수많은 색깔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지.  
네엿, 후배들아! 너만의 색깔을 찾아주는 대학, 인생의 첫 디딤돌을 잘 찾기 바란다!

episode 1

야구공 뺏는 씬 촬영 때다. 인사하고 공을 뺏을 거라고만 말해 두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격한(?) 행동과 언어를 알아서 연출 해주어 즉석에서 멋진 코믹장면이 연출됐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씬이다.

episode 2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님께 절 한번 받아달라고 말씀드리고 큰 절을 올렸다. 캠페인의 의미와 맞아떨어졌고, 나중에 1등 했다고 말씀드리니 무척 좋아하셨다고.



# INTRO

캠퍼스 뒤꼇,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드럼과 기타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이곳은 바로 밴드 동아리들의 놀이터다. 열정적인 캠퍼스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들 밴드동아리와 함께 해 보라. <꿈>이 학우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뜨거운 열정을 나누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열정이어,  
영원하라!

대가대를

대표하는

최초의 밴드 동아리

## 인트로

“인트로가 생긴 지는 벌써 20년 됐어요. 효성여대 시절부터 있었으니까요. 인트로는 대가대 최초의 밴드동아리예요. 그래서 이름도 인트로(도입부)인 거죠.”

대가대 최초의 밴드 동아리라는 자부심만큼이나 다부진 목소리를 가진 이 주희 회장의 동아리 소개다. 과연 밴드 동아리답게 방 여기저기 악기와 장비들이 눈에 띈다. 보통 재학생을 YB라 하고 졸업생을 OB라 하는 반면, 인트로에서는 공연하는 기수를 YB,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을 OB라 칭한다고 귀띔한다.





인트로는 학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가두모집 할 때 민주광장에서 3곡 내외의 곡을 연주한다. 신입생 환영회 때는 물론 축제 때도 인트로 공연이 빠질 수 없다. 특히 축제 이후 6월 초나 가을학기 기말고사 전 주쯤 정기공연도 1년에 2번 개최한다고.

“연주를 하다가 관중들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 많이 기뻐어요. 공연하는 동안 같이 호응해주고 박수쳐줄 때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느낌이지요.” 1학년인 최승진 학생은 아직도 여운이 남은 듯 첫 공연에서의 소감을 전한다.

“전에는 동아리밴드가 공연하면 반응이 없었어요. 요즘은 환호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열기도 아주 뜨거워요. 공연문화가 많이 발전된 거 같아 저희도 기분 좋아요.” 인트로 만언니 이주희 회장의 말에서 기쁨이 묻어난다.

동아리 신입멤버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바로 연습시켜서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고. 보컬은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을 부르게 하는데, 지원자가 아주 많아 선발할 때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러나 멤버선발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한 가지 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방에 자주 나오고, 또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위주로 선발한다고.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계속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인트로는 학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가두모집 할 때 민주광장에서 3곡 내외의 곡을 연주한다. 신입생 환영회 때는 물론 축제 때도 인트로 공연이 빠질 수 없다. 특히 축제 이후 6월 초나 가을학기 기말고사 전 주쯤 정기공연도 1년에 2번 개최한다고.”

공연 때는 기타 2명에 베이스, 드럼, 건반, 보컬 각 1명씩 총 6명이 무대에 선다. 축제나 정기공연 등을 준비할 때는 한 달 전부터 매일, 노래가 완성될 때까지 연습한다. 평소 공연이 없을 때는 같이 하는 팀끼리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연습하고 있다. 선배들 중에는 졸업한 후에도 음악을 하는 선배들이 있다. 홍대클럽에서 활동하거나 록페스티벌 등에 참가하며 음악을 이어가는 경우다. 일문학을 전공한 05학번 12기 선배 한 명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서울예술대학교 신입생 12학번으로 입학하기도 했다.

“인트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배들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계속 해 왔지만, 대학밴드에 대한 로망 때문에 인트로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인트로가 오래된 만큼 동아리 환경도 열악하긴 해요. 하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내년 14학번 때는 여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지금도 남자후배들이 많은데, 군대에 가고 나면 동아리방이 썰렁할 때가 많거든요.”

인트로는 7월 21일 ‘2013 대구 치킨 맥주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또 하나의 동아리인 레드리프와 드림팀을 구성해 지역에 다른 대학 밴드 동아리 5팀과의 밴드 배틀에 참여하는 것. 1등하면 상금도 100만원이란다. 대학별로 서포터즈 평가와 관중 호응도로 평가

되는데, 아무래도 대학 구성원들의 열띤 참가와 호응이 수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캠퍼스에서 꿈을 꾸고, 또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면 좋겠어요. 나이라는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특히 인트로에 들어와서 함께 음악하면서 즐겁게 캠퍼스 생활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공연 많이 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이주희 회장. 최근 10년 만에 드림을 바꾸었다며 동아리 밴드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희 공연 꼭 보러 오세요!” 대가대의 첫 열정으로 만들어진 인트로. 앞으로도 대가대의 열정을 이끌어 나가는 밴드로서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INTRO가 강추하는 이 노래, 어때요?



메탈리카  
Metallica  
Fuel

이주희 회장(세무·회계학과 10) | **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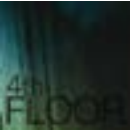
동아리에서 많이 연주했던 메탈리카(Metallica)의 「Fuel」. 말 그대로 연료는 열정이다. 특히 동아리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다.



부활  
비밀

채영철(의공학과 13) | **보컬**

박완규가 부르는 부활의 「비밀」.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너무 좋다.



포스 플로어  
4th Floor

배병섭(역사교육과 09) | **베이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을 모티브로 한 포스 플로어(4th Floor)의 「유리창」. 마야의 진달래꽃처럼 시를 가사로 삼은 노래라 슬프고 어두운 느낌이나 빠른 비트가 매력적이다.



뷰렛  
Biuret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최승진(제약산업공학과 13) | **드럼**

축제 때 했던 곡, 뷰렛(Biuret)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을 추천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가 우리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느껴진다. 첫 무대여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Red Hot Chili Peppers  
Snow

김동규(조경학과 13) | **베이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의 「Snow」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베이스 선율이 너무 좋다.



린킨 파크  
Linkin Park  
Given Up

김명준(조경학과 13) | **기타**

린킨 파크(Linkin Park)의 「Given Up」을 강추한다.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노래다.



# 잘 나가는 청춘 열정을 입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놀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청춘에겐! 잘 나가는 청춘은 열정을 입는다!

일과 일상의 맥스매치인 워크캡

스타일  
스트리트

거친 모던함의  
하드록 스타일

스포츠마니아를 위한 풋볼스타일

서핑에 어울리는 스트라이프  
하프 팬츠

심플한 멋의 스케이트 스니커즈

# 青春 禮讚

신사의 매력을 담백 담은 헌팅캡

스타일  
모범생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시원한 리넨 셔츠

엄친아 스케줄 관리에 필수인 시계

언제 어디서나 활용성 굿~  
데님 하프 팬츠

워커로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 완성





무용학과 루이스 교수 공연 'Somewhere'



## 대가대는 지금

## 장학금

## 르네상스 시대

공부와 취업 사이, 현실과 꿈 사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대가대의 장학금은 후하다. 교내 장학금만 무려 160종에 교외 장학금까지 합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금액도 최고 수준이다. 지금 두드려라. 그대에게 장학금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 HONORS 장학금

대가대 최강 혜택을 자랑하는 아너스 장학금. 지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대가대 비장의 카드다. Superior의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 매월 면학장려금 100만원과 노트북까지 지급되는 파격조건이다. 기숙사 입사시 기숙사비도 전액면제다. 해외복수학위나 해외대학 1년간 교환학생 파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물론 국제왕복항공료까지 지급된다. 대학원 진학시, 석·박사 과정의 수업료도 전액 면제된다.

### 해외대학 복수학위 장학금

본교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전액, 기숙사 영어 연수비 전액(원어민 강사와 합숙·학습)을 제공함은 물론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특별지도까지 해 준다. 미국 대학 파견 중 장학금은 토플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중국 산둥대나 길림대 등은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전액이 제공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장학금을 떠나 무엇보다 매력적인건 4년만에 대가대와 해외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

### 1인당 평균 장학금액

1,573,500원

대구·경북 대형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 중 최고 / 2012년 대학알리미

### 장학금 수혜율

63.2%

대구·경북 대형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 중 최고 / 2012년 대학알리미

### 융복합전공 장학금

복수전공, 연계전공, 다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융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체 누계성적 평균 80점 이상, 융복합전공 누적 취득학점이 21학점 이상, 직전학기 융복합전공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의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 고교생지도(멘토링) 장학금

지역 내 저소득층 고교생(멘티)에게 학습과 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봉사도 실천하고 장학금도 받는 일석이조 장학금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학기 중에는 10주간 40시간 이상 활동시 70만원, 방학기간에는 9주간 36시간 이상 활동시 65만원이 지급된다. 1인 추가 지도시 30만원 추가 지원된다.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 글로벌 인재를 위한 장학금

해외교환학생장학금은 미국 머레이주립대의 경우, TOEFL iBT 80점 또는 IELTS 6.0점 이상 소지자에게 학기당 300만원(2개 학기 총 6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미국, 영국, 필리핀 등으로 학생들을 파견하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연수비와 숙박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기 중에 다문화교육프로그램(예비반)에 참여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 창의인재를 위한 장학금

창의인재를 위한 대가대의 노력은 장학금 지급으로 나타난다. 최근 2개 학기 성적의 상승폭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업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공인영어(TOEIC/TEPS) 성적이 6개월 이내에 50점~200점 이상 향상된 학생들에게는 외국어향상장학금을 지급한다.

내 실력은 높이고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다양한 장학제도들은 대가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최고수준의 장학제도로 든든하게 미래를 꽃피우다





## 장학생 되는 비결?

## 나만 믿고 따라와

스마일이 상큼한 알짜 장학생  
**이혜정**  
화훼원예학과 08학번

### 알짜 장학생 되는 비결?

첫 번째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봤어요. 장학금을 신청할 때 자기 소개나 지원동기 같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어요. 기업에 지원서 낼 때 다 도움이 돼요. 일단 부딪혀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에 지원할 때 어떻게 할 지 미리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학교 프로그램만으로 한 학기 플랜이 짜져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죠. 마일리지처럼 계속 쌓여요.

###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미국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1달, 해외봉사활동 인도네시아 2주간, 학생홍보대사활동 등으로 장학혜택이 컸어요. CU포인트제도도 정말 알차요. 등록하고 조금만 관심가지면 기본등급이 되어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100만원까지 받아봤어요. 실무영어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데, 성적우수 장학금도 받았어요. 공강시간에는 학교 잉글리시 카페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는 것만으로 한 달에 15만원은 물론 외국인과 1:1 대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어요.

###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이 정확하더라고요. 어학연수를 위해 1년 반 휴학하고 무역회사 인턴도 5개월 넘게 했지만 결국 못 갔어요. 항공료까지 준비했었는데 겁을 먹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핸디캡이 될까봐 더 열심히 생활했어요. 인턴경험은 공부의 흐름을 잡는 계기가 되어 도움이 됐지요.

### 보람이 있다면?

저도 제가 이만큼이나 장학금을 받은 줄 몰랐는데 아반떼를 풀옵션으로 뽑은 격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고맙다고 하세요. 알아서 하니까 부모님이 전적으로 저를 믿으세요. 어디가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시면서요.(웃음) 걱정을 좀 덜어드려서 기뻐요. 부모님 자랑거리도 되고요.

### 꿈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항공기 승무원이 꿈이었어요. 지난 학기 때 최종면접까지 올라갔었어요. 취업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했던 게 다 기본이 됐어요. 학원 안 가고 혼자 준비했는데, 특별히 멘토가 있어요. 동계 어학연수프로그램에서 만난 선배인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근무해요. 이름도, 외모도 비슷해서 다 자매인 줄 알아요.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인연도 만난 거죠. 비행으로 집에 없을 때에도 면접이나 서울 올 때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언니 집 열쇠도 주더라고요.

###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여기는 보물섬 같은 곳이에요.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직원분들도 살뜰히 챙겨주시고, 총장님과 간담회 때 드린 학생들의 제의도 바로 다음날 실현됐어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기회가 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큰 인물에게는 통 큰 지원이 팍팍! 코스모스 졸업을 앞둔 이혜정 학생은 장학수혜금액으로 치자면 아반떼 풀옵션에 맞먹는단다. 대가대 애플 메인화면 모델로도 유명한 그녀를 만나 비결을 직접 들어보았다.





대가대가                  사랑스런        이유,                  바로                  다 소 머 을

다솜,  
  
내 미래를  
  
부탁해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는 ‘사랑’이란 뜻을 가진 다솜마을로 불린다. 아마레관, 세르비레관, 예지관, 효성관, 성김대건관, 다솜관, 서비스센터 등 7개동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 수려한 외관과 함께 즐거운 다솜마을의 일상 속으로 출발~

기숙사 다솜마을 정원

다솜,  
내 건강을 부탁해~

농구장, 족구장 등에서 체력단련은 물론 다솜관의 요가, 방송댄스 강의는 아름다운 몸매관리의 비결이 된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 받고도 수업료는 단 3만원. 그러나 80% 출석하면 수업료 10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800여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은 카페테리아 같은 쾌적한 분위기에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한다. 찌개류는 물론, 면류, 돈까스류, 덮밥류 등 다양한 메뉴로 사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카페와 매점은 출출한 사생들의 인기 높은 간식메뉴로 가득~



다솜,  
내 안전을 부탁해~

다솜마을 현관이 열리는 시간은 아침 6시다. 통금시간은 밤 11시. 주말, 공휴일은 외박이 되지만 평일은 안 된다. 단, 방학 때는 외박당일 5시 전까지 사무실에 신청하고 사감의 허가가 떨어지면 가능하다. 다솜마을 입구는 물론 각 관마다 경비아저씨가 철통같이 지키고 계셔서 안심이다. 들어갈 때는 카드를 찍어야만 되는데, 경비아저씨 앞에 사진이 뜨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쓸 수 없다. 친구들은 경비실에 방문사유를 말하고 신분증을 맡긴 후 1층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다. 통금시간, 각종 규제 등으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연일 이슈가 되는 흉흉한 뉴스를 보며 우리 기숙사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감사한다. 부모님도 안심하고 주무시기는 마찬가지.

다솜,  
내 공부를 부탁해~

사생선발에 있어서 신입생은 원거리 우선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적 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성적이 B+인 학생이라면 좀 불안할 듯. A학점 정도는 꽤야 가뿐히 입사 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망은 물론 컴퓨터실도 갖춰져 있다. 학습실은 관마다 있어서 열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24시간 열려있다. 신입생들에게는 선배들로부터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이다. 특히 아마레관에는 해외복수학위 학생들의 수업이 있어서 그 모습에 도전할 만기도 한다.



“생활은 물론 건강, 안전, 공부까지 책임지는 다솜마을이 있어 내 미래는 걱정없어요~”



### 최고급 신축 기숙사 건립

150억 원이 투입된 지상 15층, 지하 1층(연면적 13,981㎡) 규모의 신축 기숙사가 2015년 1월말 완공 예정이다. 동시통역 등 최첨단시설의 국제회의장과 게스트룸은 물론 영어전용공간, 스페인어 전용공간, 잉글리시 라운지, 스페니시 라운지 등에서 외국인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나 글로벌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다솜마을은 현재 7개동에 748실, 2천716명 수용이 가능하다. 기숙사 수용률(대학알리미 공식 기준)은 대구·경북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형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20.4%를 자랑하고 있다. 2015년 완공예정인 신축 기숙사가 건립되면 297실이 더해져 수용인원은 3천258명으로 늘어나 수용률은 24.4%로 상승하게 된다.



## 13학번 새내기 다솜마을 체험기

다솜, 너만 믿는다--

김 주 연    관광경영학과 13학번



전 집이 안동이어서 다솜마을에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야자마칠 때까지 절대 기숙사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공강시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완전 집이죠. 자취하는 애들은 학교 밖까지 가야 되지만 다솜마을은 학교 안에 있어서 너무 편해요. 공강시간에 내 공부, 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전 원래 덜렁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과 나온 과목을 보니 A+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솜마을 덕분인 거 같아요.(ㅎㅎ) 통학하는 애들보다 잠도 더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 언니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공지사항이나 따끈한 정보,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좋은 혜택들을 알려줘서 대학생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지금 저희 방에는 4명이 있는데, 원어민 수준의 미국복수학위 중인 언니에게는 영어를, 건축학과 언니에게는 시험공부 팁이나 해외 다녀온 얘기들을 들으며 배우고 있어요. 물론 다 다른 과예요. 그래서 과생활하면서 힘든 것도 털어놓을 수 있고, 남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고민상담도 가능해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외로웠는데, 친언니가 생긴 거 같아 든든해요.

저는 꿈이 컨벤션기획자예요. 처음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활동적인 일을 찾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벤션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 저의 미래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다솜마을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솜마을에서의 제 거주만족지수는 99%. 부러우면 지는 것.(ㅎㅎ)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알찬 시간활용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에게 필수항목이죠. 대가대 다솜마을에서 기다릴게요~”





## 큰 인물(大家)를 키우는 큰 집(大家), 대가대

학생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 최고의 교육 중심대학으로  
대가대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니다



###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1. 원서접수 : 2013. 9. 4(수) ~ 10(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가. 본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원서 접수  
나.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하여  
인터넷 원서 접수
3. 모집인원 : 2,075명
4. 문의처 : 전화) 053-850-2580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cu.ac.kr/>

★ ★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으로  
교육부 주관 3대 대형국책사업 전관왕 달성!

- ★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선정
- ★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 선정
- ★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